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모임 갖고... 이단 대처 성명

유신진화론 · 하나님의교회 · KJV유일주의 경계 요청



국내 10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한익상 목사)가 26일 천안아산주님의교회에서 제5차 이단대책위원 전체 모임을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본교단을 비롯한 예정 합동 · 동합 · 고신 · 대신 · 합신 · 백석대신, 기감, 기성, 기침이 참여하고 있다.

회장 한익상 목사는 “혼탁한 시대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단과 사이버의 거센 공격 앞에 굳건히 서기 위해 이단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연대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참석자들은 교단별 사역 현황을 공유하며 이단 대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병훈 합동신학대학원 석좌교수가 유신진화론

에 관해, 유영권 예정합신 이대위원장장은 KJV 유일주의와 하나님의교회에 관해 각각 강연하며 교리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위원장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명을 내고 “이단 집단의 쇠락 조짐은 한국교회의 이단 척결을 위한 기회”라며 “교주의 죽음과 노쇠화, 사회적 고발, 횡령 · 배임, 내부 분열 등으로 이단 집단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으나, 새로운 이단의 파생이나 생존을 위한 더 강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단 대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최근 해외 이단 확산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한인 교회가 적합한 방안을 찾아 적극

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선교 기관 역시 해외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이단 대처를 위한 방안과 대안을 찾아 선교사들을 교육 함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협의회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와 관련해 “성경과 신앙의 왜곡, 가정 분란을 일으키는 이단 · 사이버 집단”이라면서 “사회복사를 통한 이미지 관리, 막대한 현금 보유에 의한 대형건물 구매, 온 · 오프라인 성경공부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포교하는 집단임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캉제임 스성경(KJV) 유일주의’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협의회는 “KJV도 다른 사본 그리고 역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지만, 이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책이라고 주장하는 ‘KJV 유일주의’는 이단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45회 전도동력세미나 오는 8월 4~6일 개최

20만 여 명의 평신도와 목회자를 전도자 세위



사단법인 미래목회연구원(이사장 민경설 목사)은 오는 8월 4~6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45회 전국 목회자 · 평신도 초청 전도동력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도동력세미나는 1993년 시작되어 그동안 겨울과 여름에는 평신도 전도동력세미나, 봄과 가을에는 목회자 전도동력세미나로 연간 4회씩 열린 국내 최장수 최대 규모의 전도자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민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전도학교 교장으로 재임한 10여 년간은 전국 지역별 전도동력세미나도 개최해오면서 지금까지 20만 여 명의 평신도와 목회자를 전도자로 세웠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민경설 목사광진, 미래목회연구원 이사장이 주강사로 강의를 맡는다. 민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학교 교장과 대전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강의는 전도 이론과 실제 훈련을 중심으로 구성

되며, 특별강의로는 ‘3시간 연속 기도 훈련’이 포함돼 있다.

특별강사로는 김운성 목사(영락)와 하도균 교수(서울신학대학교)가 참여하며, 찬양 강사는 김동국 목사한국복음성가협회 전 회장이다.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사모, 장로, 평신도, 제직, 청년, 전도특공대 등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등록비는 교회 규모 및 등록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출석 인원 50명 이하인 개척교회가 주보를 제출할 경우, 목회자는 50%, 평신도는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단체(10명 이상)는 10% 할인, 사전 등록자(7월 13일까지)는 추가로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등록 취소 시 환불은 불가하다. 문의는 미래목회연구원(1544-0647)으로 할 수 있으며, 세미나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www.kwangjin21.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생 한자리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CCC ‘2025 여름수련회’ 지난 23~27일까지 개최

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박성민 목사, CCC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025 여름수련회’를 ‘Seize Your Season’이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여름수련회에는 해외참가자 250여 명을 포함해 1만300여 명이 한자리에 함께 했다. 저녁집회와 선택특강, 선교학교, 전국 유학생 모임, 전도 전략 교육, 새친구반, 선교 · 비전 · 통일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수련회 둘째 날부터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에선 신입생들과 새친구·아직 그리스도도를 영접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순장들을 위해서는 LTC와 ‘The Four’ 등 다양한 전도 훈련과 선교 학교, 세미나, 선택특강, 성서



강해 등이 열려 진로를 발견하고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했다.

유학생들을 위한 시간도 준비됐다. 홍콩, 베트남, 대만, 아프리카 등 11개국에서 온 유학생 100여 명은 빙고 게임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적응하기 힘든 문화는?’ 등의 퀴즈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현장에 마련된 선교 · 비전 · 통일박람회에는 97개 부스가 마련돼 선교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전수했다. 대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사역의 기회를 소개하고 선교의 길을 도전하는 자리였다. 특히 분단 80주년을 맞아 진행된 통일박람회에는 CCC NK 사역부 외에도 다양한 외부단체가 참가해 풍성한 통일 비전을 나눴다.

한교총 ‘제13회 평화음악회 in 대구’ 개최

음악 통해 존재 발견 · 함께하는 가치 제시

‘제13회 평화음악회 in 대구’가 6월 15일 대구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최하며, 더불어애움이 주관한 ‘2025 평화음악회’는 노보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필그림스소년소녀합창단, 트럼페터 드미트리 로캅렌코프, 테너 진성원,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이동환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하여 품격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전석 초청으로 진행되어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이웃들과 함께 지역사회

에 따뜻한 감동과 정서적 위로를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음악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함께하는 ‘우리’의 가치를 되새겼다.

평화음악회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문화 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영혼을 돌보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잇기 위해 2021년부터 시작됐다. 2025년 평화음악회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You & I’를 부제로 두고, 음악을 통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는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신간 소개 ■

나를 찾아서

정서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시인의 고백을 보라. 우리의 삶은 끊임 없는 탐색의 과정이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자아를 망각한 채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나’를 찾고자 하는 작은 불씨가 살아 숨 쉰다.

한 줄의 시가 마음을 어루만지고, 한 편의 글이 내면을 비춰주고, 결국 우리를 스스로에게 가까워지게 만든다.

본 시집은 그런 치유의 순간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과 의미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며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하기 바란다. 이 시를 읽고 감상함으로써 영혼이 순수함과 정서적 감성을 경험하여, 독자의 잃어버린 자아와 꿈을 되찾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나를 찾아서』는 제1부 하얀 마음, 제2부 아픈 만큼, 제3부 모진 세월들, 제4부 봄이 오는 소리, 제5부 차창 너머로 구성되었으며, 총 69편의 시가 실려 있다.

저자는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나뒀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기록하였다. 저자 안진봉 목사는 현재 충북지방회 강외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다.

저자/안진봉 출판사/BOOKK

네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

『네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는 생사의 경계에 놓인 절망의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 저자의 생생한 간증을 담고 있다. 오랜 세월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전신 관절이 뒤틀리고 꼬부라지고 굳어서 꼼짝없이 누워있던 저자는, 주님께 간절한 축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던 중에 뜻밖에도 ‘네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신비로운 성령의 음성은 곧 저자의 삶을 180°로 뒤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으로 이어지고, 절망 속에 만난 믿음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이 책은 질병, 고통, 교회 안의 갈등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음을 증언한다. 성령의 인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이 책은, 신앙의 회복과 뜨거운 기도를 갈망하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다.



저자 정인숙 목사는 2009년에 『한국교회신보』 대신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입선하고, 2012년에 계간지 『한국크리스천문학』에 단편소설 『엄마의 등지』로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면서 기독교 문단에 등단했다. 2022년에 계간지 『창조문학』에서 소설 부문 신인문학상을 수상했고, 2024년에 단편소설 『세상의 향기』로 한국크리스천문학회에서 주최하는 범하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저자/정인숙 출판사/좋은땅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제38회 하계수련회

주 제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기뻐하라”(빌 4: 4~5)

일 시 2025. 7. 18(금) 11시 30분 ~ 19(토) 11시

장 소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모 시 는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성의 모든 목사님들과 남전도회 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38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하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기뻐하라”(빌 4: 4~5)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번 하계수련회를 통하여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고 성령충만함을 받아 교단과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남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이장호 장로

총회장 홍사진 목사
주천안교회

세미나 I/총무부장 강명국 목사
늘사랑교회

세미나 II 이병준 목사
심리상담학박사

파송예배 성대동 목사
비산동교회

남전도 회장 이장호 장로
비산동교회

참 석 전국남전도회회원

등록비 6만 원(1인)

신한은행 / 110-251-476370 / 회계 윤장성

연락처 회 장: 이장호 장로 010-3712-692 4
수석부회장: 차원용 장로 010-5392-7179
총 무: 오광록 장로 010-5368-3342
서 기: 나경하 장로 010-5403-5393
회 계: 윤장성 장로 010-7135-3681

7월 18일(금) 일정

11:30~14:00	등록 및 점심
14:00~14:50	개회예배 - 홍사진 목사총회장 / 주천안교회
14:50~15:50	환영 및 축하
16:00~17:10	세미나 I: 강명국 목사남전도부장 / 늘사랑교회
17:10~17:30	간강세미나
17:30~18:30	1차 경품 추첨 / 석식 및 휴식
18:30~20:00	세미나 II: 이병준 목사심리상담학박사
20:00~	숙소 배치 및 자유시간 / 취침

7월 19일(토) 일정

07:30~08:20	이침식사
08:20~09:20	파송예배 - 성대동 목사(비산동교회)
09:20~11:00	축구대회 및 2차 경품 추첨
11:00~	마무리 귀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